

## 통일시대 아동문학 정전의 가능성

—「토끼와 원숭이」를 중심으로

마성은\*

### 국문초록

통일시대에 걸맞은 아동문학을 준비하려면 어떤 편견이나 사상·이념 등에 매몰되지 않은 채 북측 아동문학의 관점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통일시대 아동문학의 온전한 계보·정전을 모색하려면 남북이 모두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는 작가·작품을 내세워야 한다. 본고는 바로 마해송이 그런 작가이며, 그의 동화 「토끼와 원숭이」야말로 통일시대 아동문학의 정전으로 남북이 모두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는 작품임을 논했다.

작품에서 원숭이가 된 토끼들은 친일파·친미파·친소련파를 풍자한 것이다. 토끼가 토끼로 살지 못하고 원숭이가 되려 하건 똥쇠가 되려 하건 쉰 이리가 되려 하건 모두 노예근성일 뿐이다. 토끼는 어디까지나 토끼로 살아야 하며 그것이 자주성이다. 북측에서는 이 작품이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지지 못할 때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노예근성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토끼나라를 강점했던 원숭이들이 쫓겨난 뒤에 토끼나라는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건설해야 했다. 그러나 원숭이가 된 토끼들은 변함없이 자주적 입장과 근본적으로 상반·대립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북측에서는 이 작품이 노예근성을 풍자·비판하며, 아동 독자들에게 자주성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작품에서 노예근성을 비판하고 자주성을 강조한다는 점은 북측 아동문학에서

\* 마성은, 浙江师范大学 人文学院, 中国语言文学博士后流动站, wahae@hanmail.net

거듭 강조하고 있는 바와 일치한다. 따라서 「토끼와 원숭이」는 남북이 통일시대 아동문학의 정점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토끼와 원숭이」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통일과 민주주의를 지향했던 당시 마해송의 사상이 반영되어 있는 작품으로서, 작가는 우리 땅에 주둔하고 있는 외국 군대와 그들을 하느님처럼 떠받드는 노예근성이 통일과 자주적인 독립국가 건설의 걸림돌임을 지적했다. 북측의 관점에서 볼 때 토끼들은 스스로 주인이 되지 못하고 그 어떤 특별한 존재, 외세에 기대를 가지는 태도의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토끼와 원숭이」가 완성된 1947년으로부터 3년 뒤, 토끼나라로 상징되었던 한(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토끼나라와 다름 없이 참혹한 광경이 이 땅에 펼쳐졌으며, 무엇보다도 그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작품이 제3차 세계대전이나 핵전쟁을 예견한 것이라는 해석도 흥미롭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불과 3년 뒤에 한(조선)반도에서 일어날 전쟁을 예견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광복 이후에도 통일되고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건설하지 못하고, 남과 북으로 갈라진 채 외국 군대가 계속 주둔해 있다면 결코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토끼들은 땡쇠와 센 이리를 찾아가서 평화를 호소했다. 하지만 자주성을 실현할 통일되고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건설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화를 호소하는 것은 전쟁을 막을 수 없었다. 이를 통해 작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자주가 평화의 전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이 함께 「토끼와 원숭이」를 통일시대 아동문학의 정점으로 내세우는 것은 통일시대 아동문학의 역사적인 첫 걸음이 될 것이다.

■ 주제어: 마해송, 「토끼와 원숭이」, 통일시대 아동문학, 정전, 노예근성, 자주, 평화

목 차

- |              |               |
|--------------|---------------|
| 1. 머리말       | 3. 자주는 평화의 전제 |
| 2. 노예근성과 자주성 | 4. 맺음말        |

## 1. 머리말

2018년은 ‘관문점선언’·‘9월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된 해이자 ‘4월남북연석회의’ 70돌·‘7.4남북공동성명’ 46돌·‘6.15남북공동선언’ 18돌·‘10.4선언’ 11돌을 맞이하는 해다. “민족문학이란 관점에서 크게 식민지시대(일제 강점기), 분단시대, 통일시대라는 시대분류만은 가능할 것”<sup>1</sup>이라며 “통일아동문학”을 “준비”<sup>2</sup>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지도 어느덧 18년이 지났다. 6.15통일시대는 순항만 거듭하지 않았다. 남북교류가 8년 가까이 끊어져 있기도 했다. 하지만 일시적 후퇴는 있더라도 시대는 결코 거꾸로 갈 수 없다. 남북교류가 다시 이어지기 시작하면서, 통일시대를 활짝 열어 나가기 위한 준비가 다시 요구되고 있다.

2018년 10월 23일 ‘9월평양공동선언’은 남측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비준 절차를 마쳤다.<sup>3</sup> 이어서 26일 비준 사실을 북측에 정식 통보했고, 29일 0시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되며 효력이 발생했다. ‘9월평양공동선언’ 제4항은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선언하며, “남과 북은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일시대에 걸맞은 아동문학을 준비하는 것은 이제 시급한 과제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시대 아동문학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재철이 지적했듯 “이제 대립과 반목으로 일관하던 지난 반세기를 뛰어 넘어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이것은 말은 쉽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sup>4</sup>

1 이재철, 「통일시대의 아동문학」, 『아동문학평론』 제25권 제3호(통권 제96호), 2000.9, 8면.

2 이재철, 위의 글, 11면.

3 본고에서는 남북이 공식석상에서 서로를 일컫는 용어인 ‘남측’과 ‘북측’으로 각각을 지칭할 것이다.

6.15통일시대가 개막되고 남북교류가 활발했던 때를 돌아보면 남북문인들의 교류도 활발했으며, 2008년 1월에는 6.15민족문학인협회기관지 『통일문학』이 창간되기도 했다. 하지만 성인문학계의 활발했던 교류에 반해, 아동문학계에서는 이렇다 할 교류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2003년에는 이재철의 주도로 북측 동화 20편이 3권의 선집으로 출간되었고, 그 밖에도 북측 옛이야기를 남측에서 편집한 책이 몇 권 출간되기도 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으며, 성인문학계의 활발했던 교류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었다.

남북이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한 지금, 지난날과는 다르게 아동문학계가 남북교류를 스스로 주도하기 위해서는 통일시대에 걸맞은 아동문학을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 ‘그냥 준비’하는 것이 아닌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통일시대에 걸맞은 아동문학에 관한 추상적인 개념만 늘어놓거나 듣기에만 그럴싸한 탁상공론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북측 아동문학계와 마주하고 앉았을 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제안들을 준비해야 하며, 그러자면 어떤 편견이나 사상·이념 등에 매몰되지 않은 채 북측 아동문학의 관점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원종찬은 “권위주의체제가 배타적으로 쌓아올린 아동문학의 정전화는 문학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했다”<sup>5</sup>면서 아동문학의 ‘비어 있는 정전’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방정환·마해송·이주홍·현덕·이원수·이오덕·권정생으로 이어지는 아동문학 주요 작가의 계보를 제시하기도 했다.<sup>6</sup> 그가 제시한 계보는 “권위주의시대 문협정통파의 독점으로 이뤄낸 ‘문학사, 문학전

4 이재철, 같은 곳.

5 원종찬, 「아동문학의 정전 논의를 위하여」, 『한국아동문학의 계보와 정전』, 청동거울, 2018, 448면.

6 원종찬, 「아동과 문학」, 『한국아동문학의 쟁점』, 창비, 2010, 17면; 원종찬, 「계보에 비추어 본 이주홍 아동문학의 특질」, 『한국아동문학의 계보와 정전』, 청동거울, 2018, 286면

집, 교과서'에 비친 아동문학의 정전화"를 비판하며 내세운 대안이다. 이 계보에 동의하면서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까닭은 반쪽의 계보이기 때문이다. 이 계보에는 분단 이후 북측에서 활동한 작가가 현덕밖에 들어 있지 않다. 그나마도 현덕은 북측에서 성인문학 창작만 했으니, 사실상 북측아동문학은 제외된 계보인 것이다.

반쪽의 계보가 아닌 온전한 계보·반쪽의 정전이 아닌 온전한 정전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통일시대에 걸맞은 아동문학을 준비하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통일아동문학이 남북의 계보·정전을 기계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일 수는 없다. 그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더러 가능하지도 않다. 남북은 아동문학에 관한 관점이 매우 다르다. 어느 한쪽의 관점만이 옳다고 고집한다면 대화는 불가능하며, 남북의 아동문학계가 마주하고 앉는다 해도 무의미한 시간낭비에 그칠 뿐이다.

온전한 계보·정전을 모색하려면 남북이 모두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는 작가·작품을 내세워야 한다. 본고는 바로 마해송이 그런 작가이며, 그의 동화 「토끼와 원숭이」야말로 통일시대 아동문학의 정전으로 남북이 모두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는 작품임을 논할 것이다. 앞서 남북은 아동문학에 관한 관점이 매우 다르다고 언급했지만, 이는 남측 내부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마해송은 남측에서 “몇 갈래로 나뉜 아동문단의 이쪽저쪽으로부터 지지와 호평을 받고 있는”<sup>7</sup> 작가이다. 남측에서 마해송의 아동문학사적 위치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고 있다.

우리의 근대 아동문학이 출발한 이후 동요, 동시가 이른바 짝짜꿍 놀이에 빠져 있었던 것과는 달리, 동화에서는 그런 동심 천사주의가 지배하지 못하였다. 이것

7 원종찬, 「해방 전후의 민족현실과 마해송 동화—「토끼와 원숭이」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문학의 쟁점』, 창비, 2010, 107면.

은 문단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마해송 같은 분이 민족주의라는 뼈대가 있는 동화를 써서, 남의 나라 것을 모방하는 경향을 진작부터 막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우리 동화문학에서 인간적인 삶의 문제를 탐구하는 것을 중심 과제로 삼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소설의 묘사 기법을 끌어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된 현대동화로 발전하게 한 바탕을 이룩해 놓았다. 말하자면 전래동화에서 현대 동화에 이르는 다리의 구실을 선생은 감당하였던 것이다.<sup>8</sup>

이오덕은 “마해송 선생의 동화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는 것은 겨레의 독립을 바라고 사회의 잘못됨을 바로잡으려는 생각”이라면서, 그의 민족주의가 일제 강점기에는 「토끼와 원숭이」 같은 작품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하였다.<sup>9</sup> 또한 마해송은 북측에서 발간한 『1920년대 아동문학집 (2)』<sup>10</sup>에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 정전 작가이며, 해당 작품집에는 「토끼와 원숭이」를 비롯하여 동화 「바위나라와 애기별」과 아동극 「장님과 코끼리」가 수록되어 정전으로 인정받고 있다.

「토끼와 원숭이」는 『어린이』 1931년 8월호에 처음 발표되었다가 1933년 원고가 압수되며 연재가 중단되었다. 광복 뒤에 『자유신문』에 다시 연재하여 1947년 1월 완성되었다. 이후 남측에서 몇 차례 단행본으로 출간되거나 선집에 수록되었는데, 『어린이』에 수록된 부분의 일부 문장이 빠졌다. 『1920년대 아동문학집 (2)』에서는 『어린이』에 수록된 부분을 그대로 실어 자료 가치가 있지만, 검열로 복자 처리된 부분까지 그대로 남아 있어 아동 독자들이 작품을 즐기는 데 지장이 있다. 또한 작품이 1927년 『어린이』에 발표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어, 북측과 대화를 통해 사실관계

8 이오덕, 「자주와 독립의 정신을 심어 준 동화」, 마해송, 『사슴과 사냥개』, 창작과비평사, 1977, 233면.

9 이오덕, 위의 글, 231~232면.

10 류희정 편, 『1920년대 아동문학집 (2)』,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4.

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북측에서 발간한 선집에 「토끼와 원숭이」가 수록되어 있다는 것은 북측에서도 이 작품을 정전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작품이 광복 이후 남측에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밝혀 두지 않았는데, 이는 분단시대 사고방식의 산물이다. 작품이 남측에서 완성되었지만 북측에서도 얼마든지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는 작품임을 설득하려면, 북측의 관점에서 작품의 검토할 필요가 있다.<sup>11</sup> 이에 본고에서는 북측의 관점을 활용하여 작품의 중요성을 밝힘으로써, 작품이 통일시대 아동문학의 정전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sup>12</sup> 자료 가치는 물론 북측과 대화를 위해 본고에서는 『1920년대 아동문학집 (2)』에 수록된 판본을 검토하며, 남측에서 출간된 주요 판본들<sup>13</sup>도 참조할 것이다.

11 『1920년대 아동문학집 (1)』에 수록된 해설에서는 “마해송의 《바위나리와 아기별》(…중략…) 역시 의인화의 수법에 의거하여 형성하고있기는 하나 민화, 전설적인 특성이 많이 접근하고 있다”는 언급을 찾을 수 있는데, 「토끼와 원숭이」는 거론되지 않아서 작품에 관한 북측의 관점을 알 수 없다. 리동수, 「근대아동문학의 역사를 더듬으며」, 류희정 편, 『1920년대 아동문학집 (1)』,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29~30면. 또한 『조선문학』 2000년 9월호에 수록된 룩애화의 「1920년대 조선아동문학발전에서 주목되는 몇가지 문제」에서 마해송에 관한 언급을 찾을 수 있는데, 룩애화는 중국조선족이기 때문에 이를 북측의 관점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조선문학』에 수록되었다는 것은 북측에서 공감하는 내용임을 뜻하므로 참고할 수 있다. 글에서는 “마해송은 1920년대 조선아동문학계에서 동요, 동화를 포함하여 아동문학작품창작의 첫 발자국을 댄 선구자의 한사람이었다”며, “《바위나리와 아기별》, 《토끼와 원숭이》를 비롯한 일부 동화들을 《어린이》지에 발표함으로써 창작동화의 첫 출발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한다. 룩애화, 「1920년대 조선 아동문학발전에서 주목되는 몇가지 문제」, 『조선문학』 2000.9, 60면.

12 남측에서 마해송에 관한 연구는 적은 편이 아니지만, 대체로 「토끼와 원숭이」에 관한 언급은 간략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원종찬, 「해방 전후의 민족현실과 마해송 동화—「토끼와 원숭이」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문학의 쟁점』, 창비, 2010; 한연, 「마해송 동화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1999를 참고할 수 있다.

13 마해송, 「토끼와 원숭이」, 『사슴과 사냥개』, 창작과비평사, 1977; 마해송, 「토끼와 원숭이」, 겨레 아동문학연구회 편, 『겨레아동문학선집 1 엄마 마중』, 보리, 1999; 마해송, 「「토끼와 원숭이」」, 여유당, 2013; 마해송, 「토끼와 원숭이」, 『마해송 전집 1 바위나리와 아기별』, 문학과지성사, 2013.

## 2. 노예근성과 자주성

「토끼와 원숭이」는 1장 나라와 나라·2장 탕과 왕(임금)·3장 원숭이나 나라 만세·4장 까까의 맹세·5장 글방·6장 똥쇠와 센 이리·7장 원숭이 된 토끼·8장 약풀·9장 하루치 풀·10장 큰싸움 등 모두 10장으로 이루어져 있다.<sup>14</sup> 1장에는 토끼나라와 원숭이나라가 소개되어 있다. 토끼나라와 원숭이나라는 서로를 알지 못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무서운 바람에 휩쓸린 원숭이 몇 마리가 정신을 잃고 토끼나라에 이른다. 토끼들의 간호로 살아난 원숭이들은 원숭이나라를 보러 오라고 토끼들에게 권한다. 그래서 토끼 세 마리가 원숭이들과 같이 원숭이나라를 찾아간다. 2장에서 원숭이나라에 이른 토끼들은 원숭이나라의 왕에게 붙들려 간다. 원숭이나라는 토끼들을 가두고 토끼나라를 침략할 준비를 한다. 3장에서 원숭이나라는 붙들린 토끼들을 앞세워 토끼나라에 이르고, 곧 그곳을 강점한다. 4장에서 풀려난 토끼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늙은 아비토끼를 붙들고 운다. 토끼들과 같이 묶여 있다가 풀려난 원숭이 까까는 원숭이나라를 미워하며 원수를 갚겠다고 맹세한다. 토끼나라를 강점한 원숭이들은 5장에서 젊은 토끼들을 글방에 불러 원숭이말을 배우게 한다.

《원숭이는 세상에서 제일가는 짐승이다.》

14 일제 강점기에 출간된 『해송 동화집』(동성사, 1934)에는 「토끼와 원숭이」가 『어린이』 연재본(4장)까지 수록되어 있는데, 이 구성이 『1920년대 아동문학집 (2)』에 수록된 판본의 1~4장 구성과 같다. 1946년 1월 1일 『자유신문』에는 6장까지 수록되었는데, 구성이 1장 나라와 나라·2장 탕과 왕·3장 까까의 맹세·4장 글방·5장 똥쇠와 센이리·6장 원숭이 된 토끼 등으로 바뀌었다. 마해송 동화집 『떡배 단배』(학원사, 1953)에 수록된 판본은 장의 번호를 뺐지만, 7~10장의 해당 부분에 약풀·하루치 풀·큰싸움·싸움은 끝나고 등의 소제목을 붙였다. 이후 남측의 판본들은 이 장 제목을 따르고 있다. 원종찬, 「해방 전후의 민족현실과 마해송 동화-「토끼와 원숭이」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문학의 쟁점』, 창비, 2010, 124~129면.

어린 토끼 시시는 글방에서 배운 말을 외치고 다녔다.

늙은 아버지 슈슈는 그것을 들을 때마다

《고이한놈들!》

하고 혀바닥을 차면서 분해했다.<sup>15</sup>

글방에서 원숭이말을 배우게 한 것은 일제의 조선어 말살정책을, 시시가 외치고 다니는 말은 황국신민화 교육을 풍자한 것이다. 원숭이나라에서 갇혀 있었을 뿐 아니라 원숭이들에게 형·동생·어머니를 잃은 시시가 “원숭이는 세상에서 제일가는 짐승”이라고 외치고 다니는 모습은 안타까움을 넘어 화를 자아낸다. 아무리 시시가 어려서 사리분별을 못한다 해도, 원수가 세상에서 제일이라 외치고 다니는 것은 그저 어린 모습이 아닌 어리석은 모습인 것이다.

6장에서 원숭이나라는 더 강점할 땅을 찾다가 토끼나라 남쪽의 똥쇠나라를 친다. 똥쇠나라는 천하에 구원을 청하는데, 토끼나라 북쪽에서 센 이리라는 짐승이 떼를 지어 들어오면서 원숭이들을 쓰러뜨리고 쫓아낸다. 싸움이 끝나고 남쪽의 똥쇠와 북쪽의 센 이리는 서로를 이상하게 생각한다. 7장에서는 그동안 원숭이가 된 토끼들이 한편에서는 “똥쇠는 세상에서 제일가는 짐승”이라며 똥쇠말을 배우고 똥쇠 같이 되자 연설하고, 한편에서는 “센 이리는 세상에서 제일가는 짐승”이라며 센 이리말을 배우고 센 이리 같이 되자 연설한다.<sup>16</sup>

원숭이가 된 토끼들은 친일파가 광복 이후 앞장서서 친미파·친소련파가 된 것을 풍자한 것이다. 토끼가 토끼로 살지 못하고 원숭이가 되려 하

15 마해송, 「토끼와 원숭이」, 류희정 편, 『1920년대 아동문학집 (2)』,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4, 218면.

16 마해송, 위의 책, 221면.

건 똥쇠가 되려 하건 센 이리가 되려 하건 모두 노예근성일 뿐이다. 토끼는 어디까지나 토끼로 살아야 하며 그것이 자주성이다. 이에 관해 한연은 작가가 “우리 민족의 주체성 상실”과 “사대주의적 비굴한 아부 근성까지도 비판”하며, “스스로 상실해 가는 저항 의식과 주체성 회복을 강조”했다고 평가한다.<sup>17</sup> 북측의 관점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북측에서는 아동문학의 목표가 “주체형의 인간육성에 있다”<sup>18</sup>고 밝힌다. 그렇다면 북측에서 말하는 “주체형의 인간”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자주성은 사람의 본성이지만 사람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자주적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질 때 보다 높은 자주적요구를 삶의 요구로 받아들이고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며 발전하기 위하여 투쟁하게 된다. 자주적요구를 삶의 요구로 여기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해나가는 생활이 바로 자주적인 생활이다.<sup>19</sup>

“주체형의 인간”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짐으로써 “자주적요구를 삶의 요구로 받아들이고 세계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사는 인간이다. 그렇다면 북측의 관점에서 볼 때 원숭이가 된 토끼들에게 걸여된 것은 ‘자주적인 사상의식’이다. 철학용어라서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자주적인 의식’이라는 말을 ‘스스로가 주인이라는 의식’으로 풀어서 이해하면 남측에서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북측에서는 이 작품이 자주적인 사상의식을 가지지 못할 때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노예근성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음을 잘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7 한연, 위의 글, 39면.

18 정룡진, 『주체문학전서 6 아동문학』, 문학예술출판사, 2008, 13면.

19 주체철학교과서집필조, 『주체철학(대학용)』,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4, 188면.

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민족내부의 반동적인 착취계급을 적극 비호하고 그들의 특권을 보장해주면서 저들의 하수인으로 리용한다. 또한 피압박민족의 민족정신과 민족성을 말살하고 그들에게 노예적굴종사상과 퇴폐적인 반동문화를 주입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sup>20</sup>

북측의 관점에서 볼 때 원숭이나라는 토끼들의 정신을 말살하고 “그들에게 노예적굴종사상”을 주입하기 위해, 원숭이말을 배우게 하고 “원숭이는 세상에서 제일가는 짐승”이라고 외치게 한 것이다. 또한 원숭이가 된 토끼들은 토끼나라 “내부의 반동적인 착취계급”인데, 원숭이들은 “그들의 특권을 보장해주면서 저들의 하수인으로 리용”했다. “노예적굴종사상”을 벗어던지지 못한 원숭이가 된 토끼들은 원숭이들이 쫓겨나고 똥쇠와 센 이리가 들어오자, 다시 똥쇠와 센 이리가 되려는 것이다.

자주적립장은 모든 나라 인민들이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자기 혁명의 리익을 중심에 놓고 그로부터 출발하여 모든 문제를 보고 대하며 자기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는데로 모든것을 지향시켜나가는 립장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의 요구와 리익을 기본으로 하여 그에 맞게 풀어나가는 자주적립장은 남의 의사를 따르면서 자기의 리익에 배치되게 행동하는것과는 근본적으로 상반된다.

자주적립장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머리로 사고하여 독자적인 주견을 세우고 자기의 결심과 신념에 따라 독자적으로 처리해나가는 립장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해나가는 자주적립장은 남에게 눌리거나 종속되어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결심대로 처리하지

20 주체철학교과서집필조, 위의 책, 132면.

못하는것과는 근본적으로 대립된다.<sup>21</sup>

토끼나라를 장점했던 원숭이들이 쫓겨났으니 이제 토끼나라는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건설해야 했다. 그러나 원숭이가 된 토끼들은 변함없이 “남의 의사를 따르면서 자기의 리익에 배치되게 행동”하고, “남에게 놀리거나 종속되어 자기의 문제를 자기의 결심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원숭이가 된 토끼들의 태도는 자주적 입장과 근본적으로 상반·대립된다. 따라서 북측에서는 이 작품이 노예근성을 풍자·비판하며, 아동 독자들에게 자주성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작품에서 노예근성에 대한 풍자·비판은 의인화의 수법과 상징을 통해 형상화되었다. 북측에서는 “동화는 인간의 복잡하고 다양한 생활을 의인화의 수법과 환상, 과장, 상징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상수법으로 반영하는 아동문학의 한 형태”<sup>22</sup>로 규정한다. 동화에 관한 개념 규정은 남북이 거의 같은데, 「토끼와 원숭이」는 동화 장르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남북의 평가가 일치할 수 있다.

북측에서는 “어린이들은 의식수준과 지적수준의 미성숙으로 말미암아 복잡하고 다양한 인간생활의 모든 갈래들과 그 본질적내용들을 깊이있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인간의 본질적숙성을 체현하여가는 자주적인 사회적존재인것으로 하여 인간과 그 생활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며 세계를 자기의 자주적요구실현에 복종시키려는 욕망을 지니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동화와 우화 문학이 의인화의 수법과 환상, 과장, 상징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상수법들을 리용하게 되는것은 현실에 대한 어린이들의 미의식의 특성에 맞게 작품을 창작하기 위한 요구와 관련된다”는 것이다.<sup>23</sup>

21 주체철학교과서집필조, 위의 책, 172~173면.

22 장영·리연호, 『주체적문예리론연구(19) 동심과 아동문학창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5, 119면.

어린이들이 지니고있는 준비정도의 미숙성과 욕망의 크기사이에 생기는 이 공백을 메꾸기 위하여 그들은 자기를 둘러싼 세계와 끊임없이 말을 주고받고싶어하며 현실생활에서는 도저히 이룰수 없는 현상까지도 환상적으로 그려보면서 그것을 현실처럼 믿고싶어한다.

동화와 우화는 어린이들의 이런 심리적특성을 반영하여나온 문학형태인것으로 하여 현실을 생활그대로의 형식으로 반영하는것이 아니라 사람 또는 의인화된 동식물이나 사물현상, 개념 등을 등장시키고 그들의 사고와 행동을 환상적인 세계에서 과장하여 보여주게 된다. 이렇게 되면 어린이들은 그 세계가 자기들의 연령심리상태와 잘 어울리는것으로 하여 거기서 흥미를 느끼게 되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 되려는 꿈을 쉽게 키울수 있게 된다.<sup>24</sup>

이렇듯 북측에서는 동화를 아동소설과 엄격히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원종찬도 강조한 바 있다.<sup>25</sup> 남북의 아동문학계가 장르의 규정과 명칭을 통일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인데, 이는 후속 연구에서 검토하기로 한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지점은 「토끼와 원숭이」야말로 어린이들의 “연령 심리상태와 잘 어울리는것으로 하여 거기서 흥미를 느끼게 되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 되려는 꿈을 쉽게 키울수 있게” 해주는 동화라는 것이다. 작품에서 노예근성을 비판하고 자주성을 강조한다는 점은 북측 아동문학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바와 일치한다. 따라서 「토끼와 원숭이」는 남북이 통일시대 아동문학의 정전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작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3 장영·리연호, 위의 책, 119~120면.

24 장영·리연호, 위의 책, 120면.

25 원종찬, 「한국의 동화 장르」, 『한국아동문학의 쟁점』, 창비, 2010.

### 3. 자주는 평화의 전제

자주적 입장과 근본적으로 상반·대립되는 태도로 일관한 원숭이가 된 토끼들 때문에, 토끼나라는 통일되고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건설하지 못하고 토끼나라의 남과 북에 주둔한 똥쇠와 센 이리에 종속된다. 8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토끼들은 달님을 하느님으로 생각하였다.

좋은 일이 있으면 달님이 해주시는 줄 알고 나쁜 일이 있으면 달님이 벌을 주는것으로 생각하였다.

토끼들은 못살게 굴던 원숭이들을 똥쇠와 센 이리라는 처음 보는 짐승들이 이 쪽저쪽에서 나타나서 온통 죽이고 쫓아내주니 똥쇠나 센 이리 말은 달님 말씀같이 생각하고 무슨 말이든지 잘 듣고 잘 대접하였다.<sup>26</sup>

이는 광복 이후 남과 북에 주둔한 미군과 소련군은 물론, 또 다시 패권을 추구하는 세력들에 굴종하며 종속을 택했던 자들에 대한 선명한 비판이다. 마해송이 광복 이후 「토끼와 원숭이」 연재를 재개했던 『자유신문』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어떠한 정치세력에도 가담하지 않고 통일과 민주주의를 지향”<sup>27</sup>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원종찬은 당시 작가의 사상도 마찬가지로였음을 강조한다.<sup>28</sup> 「토끼와 원숭이」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통일과 민주주의를 지향했던 당시 마해송의 사상이 반영되어 있는 작품으로서, 작가는 우리 땅에 주둔하고 있는 외국 군대와 그들

26 마해송, 위의 책, 222면.

27 송건호, 『한국현대언론사』, 삼민사, 1990, 18~19면, 원종찬, 「해방 전후의 민족현실과 마해송 동화-「토끼와 원숭이」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문학의 쟁점』, 창비, 2010, 131면에서 재인용.

28 원종찬, 같은 곳.

을 하느님처럼 떠받드는 노예근성이 통일과 자주적인 독립국가 건설의 걸림돌임을 지적한 것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맡아서 수행하여야 할 그 어떤 특별한 존재가 따로 없다. (...중략...) 그 어떤 영웅호걸이나 외세에 기대를 가져서는 어느때 가서도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실현할수 없다. 인민대중자신이 주인이 되어 적극적으로 투쟁하여야 온갖 예측과 구속을 극복하고 자주성을 실현할수 있다. 이로부터 인민대중은 자기의 자주적지향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투쟁을 자신이 책임지고 수행해나간다.<sup>29</sup>

북측에서는 자주성을 실현해 줄 “그 어떤 특별한 존재가 따로 없”으며 “그 어떤 영웅호걸이나 외세에 기대를 가져서는 어느때 가서도” 자주성을 실현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오로지 자신이 주인이 되어야 “온갖 예측과 구속을 극복하고 자주성을 실현할수 있다”는 것이다. 북측의 관점에서 볼 때 토끼들은 스스로 주인이 되지 못하고 달남이건 똥쇠건 쉰 이리건 그 어떤 특별한 존재, 외세에 기대를 가지는 태도의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작품에는 노예근성에 빠져 있는 토끼들 틈에서도 줄곧 자주성을 잃지 않는 토끼가 있으니, 바로 원숭이나라에 다녀온 토끼들의 늙은 아버지 슈슈이다. 8장이 마무리되는 대목에서 슈슈는 “이제 큰일 날 일”이라며 걱정한다. 토끼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외국 군대가 전쟁을 일으킬 것을 예상한 것이다. 9장에서 슈슈는 아들 시시·사사·소소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눈다.

29 주체철학교과서집필조, 위의 책, 94면.

늙은 토끼 슈슈는 이렇게 말했다.

《이게 아무래도 큰일 날 일이다. 우리들에게는 다 고마운 짐승이지만 큰짐승끼리 처음 만나는것이라 한번 크게 싸움이 시작되는 날이면 우리 토끼들은 가운데 들어서 짓밟히고 걷어채이고 피하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다 죽게 될것이다. 그러나 그뿐아니라 똥쇠나 센 이리들도 어떻게 될는지 참 큰일이다.》

하고 한숨을 쉬었다.

시시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리가 없지요. 똥쇠나 센 이리가 모두 우리들을 구원하러 달님이 보내주신 짐승인데 둘이 싸울 까닭이 있을까요? 또 우리들을 못살게 할리가 없을것 같은데요.》

소소는 또 이렇게 말했다.

《두 짐승이 마침 우리들 토끼로 해서 만나게 되었기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것이니까 우리의 힘으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지요.》

《어떻게?》하고 슈슈는 귀를 기우렸다.

《두 짐승이 다 우리를 구원해준 짐승이니까 우리를 잘살게 해주려면 또 당신들도 싸우지 않고 잘살려면 제발 당신들의 땅으로 각기 돌아가라고 가서 말하지요.》<sup>30</sup>

토끼나라를 원숭이나라가 강점했을 때 글방에서 배운 대로 “원숭이는 세상에서 제일가는 짐승”이라 외치고 다니던 시시는 “똥쇠나 센 이리가 모두 우리들을 구원하러 달님이 보내주신 짐승인데 둘이 싸울 까닭이” 있겠느냐며 변함없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인다. 반면에 소소는 “우리의 힘으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며 자주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그는 토끼들은 물론 똥쇠와 센 이리도 싸우지 않고 잘 살려면 그들의 땅으로 각기

---

30 마해송, 위의 책, 223~224면.

돌아가야 한다고 가서 말하자는 자주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10장에서 토끼들은 슈슈를 앞장세우고 똥쇠와 센 이리를 찾아가서 평화를 호소한다. 하지만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모르게 싸움이 시작”<sup>31</sup>되고, 참혹한 광경이 펼쳐진다.

토끼들은 아무리 뛰어서 도망가도 똥쇠와 센 이리를 피할 수가 없었다.

깃땀히고 깔리고 견어채이고 부딪쳐서 살길이 없었다.

밤이 되어도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이튿날이 되어도 끝나지 않았다. 맨 나중에 남은놈끼리도 싸워서 다 죽어버렸다.

까마득한 허허벌판에 똥쇠와 센 이리와 토끼들의 주검이 산더미같이 끝없이 누워있었다.<sup>32</sup>

이 대목은 패권을 추구하는 세력들의 큰 싸움과 공멸을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제3차 세계대전을 예견한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sup>33</sup> 그러나 멀리 갈 것 없이 「토끼와 원숭이」가 완성된 1947년으로부터 3년 뒤, 토끼나라로 상징되었던 한(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토끼나라와 다를 바 없이 참혹한 광경이 이 땅에 펼쳐졌으며, 무엇보다도 그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작품이 제3차 세계대전이나 핵전쟁을 예견한 것이라는 해석도 흥미롭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불과 3년 뒤에 한(조선)반도에서 일어날 전쟁을 예견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작가는 예언자가 아닌 만큼, 예견 그 자체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광복 이후에도 통일되고 자주적인 독립국을 건설하지 못하고, 남과 북으로 갈라진 채 외국 군대가 계속 주둔해

31 마해송, 위의 책, 227면.

32 마해송, 같은 곳.

33 원종찬, 같은 곳.

있다면 결코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조국통일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외세에 의해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는 문제이다.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 한강토에서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70여년동안이나 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는것보다 더 가슴아픈 비극은 없다.

조선의 분렬은 외세가 강요한것이다. 외세에 의하여 우리 조국이 둘로 갈라졌으며 외세의 방해책동때문에 오늘까지도 통일을 이룩하지 못하고있다. 민족내부 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허용하면 오히려 복잡성만 조성되고 언제 가도 조국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해결할수 없다.

온 겨레는 민족의 자주권을 귀중히 여기고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며 민족자주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해나가야 한다.

(…중략…)

북과 남이 함께 손잡고 마련한 오늘의 성과들을 소중히 여기고 새로운 평화의 궤도, 화해협력의 궤도에 확고히 들어선 북남관계를 계속 탈선없이 곧바로 이어나가야 한다. 그러자면 온 겨레가 민족자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조국통일 위업수행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해결해나가야 한다.

우리 민족이 나아갈 길은 오늘도 래일도 민족자주의 길, 민족단합의 길이다.

민족자주의 정신은 민족을 강하게 만들지만 외세의존은 자기 운명을 스스로 망치는 길이다. 이것은 민족의 자주적운명개척을 위한 험난한 투쟁속에서 우리 겨레가 찾은 진리이다.

북남관계개선은 그 누구의 승인을 받고 하는것이 아니며 누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것도 아니다. 북남관계문제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이며 그것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개선해나갈수 있는 힘과 지혜도 우리 민족자신에게 있다.<sup>34</sup>

북측에서는 “그 누구의 승인”이나 “누구의 도움”을 바라는 “외세의존은 자기 운명을 스스로 망치는 길”이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토끼와 원숭이」에서 참혹한 전쟁을 묘사하며 강조했던 바와 일치한다. 슈슈와 소소는 “우리의 힘으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자주적인 태도로 똥쇠와 센 이리를 찾아가서 평화를 호소했다. 그러나 자주성을 실현할 통일되고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건설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화를 호소하는 것은 전쟁을 막을 수 없었다. 이를 통해 작가가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자주가 평화의 전제’라는 것이다.

‘9월평양공동선언’에는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2018년 11월 1일부터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했다. 마해송이 「토끼와 원숭이」에서 ‘자주는 평화의 전제’임을 강조한 지 71년 만에, 남북이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통해 평화의 첫 걸음을 뗀 것이다. 따라서 남북이 함께 「토끼와 원숭이」를 통일시대 아동문학의 정전으로 내세우는 것은 통일시대 아동문학의 역사적인 첫 걸음이 될 것이다.

34 라설하, 「민족자주는 조국통일의 근본원칙」, 『로동신문』, 2018.10.3.

#### 4. 맺음말

아동문학 정전의 형성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아동문학사·아동문학전집·교과서다.<sup>35</sup> 통일시대 아동문학 역시 이를 통해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남북이 통일아동문학사를 서술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과제임에 틀림없지만, 지난한 작업이 될 것이다. 교과서는 체제 재생산의 대들보와 같기 때문에<sup>36</sup>, 남북이 체제의 통일을 이루어야 교과서의 통일도 가능하다. 분단은 남북의 문법까지 달라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 같은 작품을 수록한다고 해도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에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당장 똑같은 교과서를 쓸 수는 없겠으나, 수록 작품 가운데 일부를 통일하는 정도만으로도 남북의 어린이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토끼와 원숭이」는 남북이 초등(소)학교 저학년 교과서에 공동 수록하기에 적합한 작품이다.

남북이 통일아동문학전집을 발간하는 것은 비교적 수월한 작업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관점의 차이 때문에 수록 작품을 공동 선정하는 데 있어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아동소설은 현실을 그대로 묘사하는 장르적 특성상 체제의 성격이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어서<sup>37</sup>, 양측이 선택 수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반면에 동화·우화의 경우에는 장르적 특성상 현실을 그대로 묘사하지 않기 때문에, 양측이 어려움 없이 수용할 수 있다. 또한 「토끼와 원숭이」는 분단 이후 남측에서 완성된 작품이기는 하지

35 원종찬, 「아동문학의 정전 논의를 위하여」, 『한국아동문학의 계보와 정전』, 청동거울, 2018, 449면; 이종일, 「1950~1960년대 아동문학장의 형성과정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논문, 2015, 2~3면.

36 권혁준, 「정전의 관점에서 본 문학작품 선정의 문제점과 과제-초등학교 서사 장르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11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2.

37 마성은, 「김정은 시대 초기 북한아동문학의 동향」, 『우리어문연구』 48집, 우리어문학회, 2014; 마성은, 「선군시대 북한아동문학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논문, 2018; 이원수, 『이원수아동문학전집 28 아동문학 입문』, 웅진, 1984.

만 분단 이전에 발표되기 시작한 작품이며, 양측에서 정부를 세우기에 앞서 완성된 작품인 만큼 분단시대 사고방식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작품이다. 따라서 「토끼와 원숭이」는 남북이 통일아동문학전집의 수록 작품을 공동 선정할 때,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작품이다.

마해송이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서 오래 체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친일작가로 지목된 바 없다는 점도 그를 통일시대 아동문학의 정전 작가로 내세우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전쟁 이후 일부 반공주의 작품을 발표한 것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이미 북측에서 발간된 선집에 마해송의 작품이 3편이나 수록되어 있다는 점을 보면 북측에서도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남북이 통일시대 아동문학의 정전 작가를 내세울 때 어떤 작가가 특정 시기에 보인 행적만으로 친일작가·반공작가로 규정하여 배제한다면, 통일시대 아동문학의 정전은 극히 협소해질 것이다. 한 사람의 작가를 평가할 때에는 특정 시기의 행적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인생 전반과 작품 전반을 평가해야 마땅하다. 마해송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통일과 민주주의를 지향했으며, 자주가 평화의 전제임을 강조했던 작가였다. 또한 1950년대에서 60년대에 걸치는 후기 작품들에서는 이승만 독재정권을 비판하는 작품을 누구보다 많이 발표하기도 했다.<sup>38</sup> 마해송을 평가할 때에는 이런 점들이 강조되어야 한다.

본고는 반쪽의 계보가 아닌 온전한 계보·반쪽의 정전이 아닌 온전한 정전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통일시대에 걸맞은 아동문학을 준비하는 첫 걸음이라는 문제의식으로부터, 남북이 모두 납득하고 인정할 수 있는 작가가 바로 마해송이며, 그의 동화 「토끼와 원숭이」야말로 통일시대 아동문학의 정전으로 내세울 수 있는 작품임을 입증하고자 했다. 작품에

38 원종찬, 「해방 전후의 민족현실과 마해송 동화—「토끼와 원숭이」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문학의 쟁점』, 창비, 2010, 134면.

서 노예근성을 비판하고 자주성을 강조한다는 점은 북측 아동문학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바와 일치한다. 따라서 작품은 남북이 통일시대 아동문학의 정진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작품에서 '자주는 평화의 전제'임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남북이 함께 작품을 통일시대 아동문학의 정진으로 내세우는 것은 통일시대 아동문학의 역사적인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앞서 거듭 강조한 바와 같이 통일시대 아동문학은 반쪽의 계보가 아닌 온전한 계보·반쪽의 정진이 아닌 온전한 정진을 요구한다. 본고에서 마해송과 「토끼와 원숭이」에 주목한 것은 온전한 계보·온전한 정진을 모색하는 첫 걸음이다. 통일시대 아동문학의 온전한 계보·온전한 정진을 모색하려면, 남북 아동문학을 아우르는 관점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후속 연구를 계속하여, 지난날과는 다르게 아동문학이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겨레아동문학연구회 편, 『겨레아동문학선집 1 엄마 마중』, 보리, 1999.  
 마해송, 『마해송 전집 1 바위나리와 아기별』, 문학과지성사, 2013.  
 마해송, 『사슴과 사냥개』, 창작과비평사, 1977.  
 마해송, 「『토끼와 원숭이』」, 여유당, 2013.  
 류희정 편, 『1920년대 아동문학집 (1)』,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류희정 편, 『1920년대 아동문학집 (2)』,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4.

### 2. 논문

- 권혁준, 「정전의 관점에서 본 문학작품 선정의 문제점과 과제—초등학교 서사 장르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11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12.  
 라설하, 「민족자주는 조국통일의 근본원칙」, 『로동신문』, 2018.10.3.  
 류애화, 「1920년대 조선아동문학발전에서 주목되는 몇가지 문제」, 『조선문학』 2000.9.  
 마성은, 「김정은 시대 초기 북한아동문학의 동향」, 『우리어문연구』 48집, 우리어문학회, 2014.  
 마성은, 「선군시대 북한아동문학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논문, 2018.  
 이재철, 「통일시대의 아동문학」, 『아동문학평론』 제25권 제3호(통권 제96호), 2000.9.  
 이충일, 「1950~1960년대 아동문학장의 형성과정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논문, 2015.  
 한 연, 「마해송 동화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1999.

### 3. 단행본

- 이원수, 『이원수아동문학선집 28 아동문학 입문』, 용진, 1984.  
 원종찬, 『한국아동문학의 계보와 정진』, 청동거울, 2018.  
 원종찬, 『한국아동문학의 쟁점』, 창비, 2010.  
 장영 · 리연호, 『주체적문제리론연구(19) 동심과 아동문학창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5.  
 정룡진, 『주체문학전서 6 아동문학』, 문학예술출판사, 2008.  
 주체철학교과서집필조, 『주체철학(대학용)』,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4.

Abstract

## The Possibility of a Children's Literary Canon in Unification Era

—Focused on The Rabbit and the Monkey

Ma Sungeun

In order to prepare a complete genealogy and canon of children's literature in unification era, both Koreas should present writers and works that can be understood and accepted. This study proved that Ma Haesong is such a writer, and that his children's story *The Rabbit and the Monkey* is a children's literary canon in unification era that both Koreas can be understood and accepted.

The rabbits who became the monkeys are a satire on pro-Japanese, pro-American and pro-Soviet collaborators. It's a servility that rabbits can't live as rabbits and try to become other animals. The rabbits must live as rabbits and that's independence. In North Korea, it will be evaluated as a work that shows that people can't live as owners of their own destiny unless they have independence.

After the monkeys who forced upon the rabbit country were driven out, the rabbit country had to build its own independent country. However, the rabbits who became the monkeys remain opposed to independence. Therefore, North Korea will evaluate this work as a reminder of the importance of independence to children's readers, while satirizing and criticizing a servility. Criticizing a servility and

emphasizing independence in this work is like repeatedly emphasizing children's literature in North Korea. Therefore, it's likely that both Koreas agree that the work is a children's literary canon in unification era.

The Rabbit and the Monkey reflects the Ma Haesong's ideas for unification and democracy while advocating progressive democracy. Ma Haesong criticized the foreign military stationed in our land and a servility supporting them like God as a stumbling block to unific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nation. In North Korea, the rabbits will be judged by showing their attitude that they are not owners of themselves and are expected of foreign power.

Three years after The Rabbit and the Monkey was completed in 1947, war broke out on the Korean Peninsula, which was symbolized as the rabbit country. Just like the rabbit country, a horrible sight unfolded on this land. First of all, the war is still not over. It's interesting to see that the work predicted World War III or nuclear war. But what is really important is that it predicted a war on the Korean Peninsula in just three years. The key point is that the war can't be avoided if the foreign military remains in the presence of foreign forces, as it has not been able to establish a unified and independent nation after independence.

The rabbits appealed for peace. However, without the construction of a unified and independent nation to realize independence, appealing for peace could not stop the war. Through this process, the writer emphasize that "independence is a precondition for peace." Therefore, it would be a historic first step in children's literature in unification era for both Koreas to jointly present The Rabbit and the Monkey as a children's literary canon in unification era.

■ Keywords: Ma Haesong, The Rabbit and the Monkey, children's literature in unification era, canon, servility, independence, peace

■ 논문접수일: 2018. 11. 15. / 심사기간: 2018. 11.22~12.02. / 게재확정일: 2018. 12.05.